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 행 인 : 이 중 윤 발 행 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3 전화 (02) 517 - 7651 ~ 5 팩스 (02) 512 - 1225

날마다 구원의 뜨거운 감격으로

봄기운이 완연하다.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의 개강이 임박해 있고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의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우리교회에도 새로운 다짐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다.

우리가 교회의 행사에 참여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공예배 때마다 준비된 자세로 최고의 정성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가난한 심령과 고요한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심고 물 주는 일을 우리가 선 자리에서 은사를 따라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다는 믿음을 굳게하여 우리교회 행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할 때다.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다하셨으니 때마다 일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고, 물 주는 일 때마다 일마다 구원 받았음에 대한 감격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기쁨으로 임하자.

제 7차 김치 신학세미나 프로그램 확정

	5. 20.(MON)	5. 21.(TUE)	5. 22.(WED)	5. 23.(THU)	5. 24.(FRI)	5. 25.(SAT)	5. 26.(SUN)	5. 27.(MON)	5. 28.(TUE)	5. 29.(WED)
5:30	오세아니아 교회 지도자를 위한 새벽기도회 Pre - dawn Prayer Meeting for Oceanian									
6:00	개인경건의 시간 Private Quiet Time									
7:00	아침식사 Breakfast									
8:30	자유시간 Free time									
10:00	개회예배 Opening Worship	강의 I Lecture I	강의 II Lecture II	강의 III Lecture III	강의 IV Lecture IV	강의 V Lecture V	교회학교 참관 Sunday School	강의 VI Lecture VI	강의 VII Lecture VII	강의 VIII Lecture VIII
10:50	도착 Arrival	휴식 Intermission								
11:10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주일 예배 Worship Service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12:00	점심식사 Lunch									
13:00	시내관광 City Tour	교회 방문 Visit Church	기독교대학방문 Visit Christian Univ.	자유시간 Free	산상기도 Mountain Prayer	간증 Testimony	목회자세미나 참관 Pastoral Seminar	신학교 방문 Visit Theological Seminary	강의 IX와 토의 Lecture IX Discussion	
15:00						찬양예배 Evening Worship	성서공회 방문 Visit Korea Bible Society			
18:00	등록 Registration	환영만찬 Welcome Dinner	저녁식사 Dinner					가정초청만찬 Traditional Dinner	교계지도자 초청만찬 Dinner with Ch. Leaders	저녁식사 Dinner
19:00		국가별 모임 Nat'l Meeting		다락방 참관 Upper RM Study	자유시간 Free Time	묵상 Meditation				폐회예배 Closing Worship
20:30										
21:00	그룹기도 Group Prayer									

* 5. 30.(THU) - 참석자 출국 Departure

창세기
강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

(창세기 38장 1절 - 25절)

이종운 목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다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41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74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9절 이하의 족보는 신약과는 또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일반 역사와는 다른 구원 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마치 요셉의 혈통을 통해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은혜의 승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1.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은혜의 승리

창세기 5장, 10장, 11장, 36장, 46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자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고 있으나 마태복음에는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첫째가 다말로서 야곱의 장자인 유다의 자부이자 시부와 간음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여인입니다. 다말은 상식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인입니다. 도덕적으로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라합은 롯과 결혼한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롯은 저주받은 모압족속의 여인입니다. 밋새바는 우리아의 아내로 자기의 남편을 죽인 다윗과 결혼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 존경받을만하고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부끄러운 죄를 짓거나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 의와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 없고 아무도 자기 죄 때문에 절망해서도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시147:11).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크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시63:3).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도 얻지 못할 구원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거저 주셨습니다. 은혜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요, 롯은 모압인이며, 밋새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ฮิต타이트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버리셨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요4:22)고 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실은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된 우리까지도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육신의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을 이룸보다 오히려 다툼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2.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이 이방인이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롯은 남편이 죽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치고 그를 좇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롯의 순종과 애정은 그녀가 유대인이 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까지 신앙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라합의 신앙은 더욱 분명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서 일을 합니다(히11:31, 수2:9-13). 이들 여인의 이야기는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고 구원에서 멀리 있던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여망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

의 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요6:37).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라’는 초청은 다른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밋새바와 같이 큰 죄를 범했거나, 다말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라도 희망이 없는 여인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난하고 절망에 처한 과부였던 롯과 같이 소외된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라합은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었고 신앙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 전체에서 기생 라합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라합처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며 고투하고 있는 성도들이 라합의 구원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네 여인들과 같이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 순례자 컬럼 ✦

“당신도 변할 수 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도 변하여 새사람 되게 하는 것이 종교요 신앙이라면 나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대답이다. 외적인 구조나 습관을 바꾸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변해야 할 ‘나’라는 존재가 몸 밖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지 않은가. 심리적 변화나 안목이 바뀌는 것으로는 안된다. 변해야 할 ‘나’는 자신과 세상만을 알고 시공의 세계에서 불안, 허무, 공포 속에서 아직도 믿음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영원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돌아오라. 그 분에게 돌아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보일 것이다. 당신도 변할 수 있다. 그 분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라.

■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긴 방학을 마치고 다시 만나는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최종시(장로,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원감)

심술궂은 동장군도 살며시 찾아온 따스한 봄볕에 밀려 어디론가 사라져 갔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의 향기가 길어가는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9학기를 감사하며 준비하며 다시 우리를 감격의 도가니로 이끌어 주실 순간들을 고대합니다.

그동안 이 좁은 가슴에 각인된 수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치고 긴 방학을 마치고 다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마냥 설레기만 합니다.

열악한 환경도 개의치 않고 입주의 여지없이 YMCA대강당을 가득 메울 주의 종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요. 거기 그 자리에 참석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현대사회와 교회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벽마다 찬 공기를 마시면서도 온 정성을 쏟아 김밥을 만드실 권사님들의 따뜻한 손길, 훈훈한 인정이 목회자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불러주시고 사명 주심을 감격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의 수가 더해감을 감사합니다.

10주간 매 주 월요일만은 구별해 놓고 '이날만은 안된다'며 세상일을 뒤로 미루어 놓고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음을 조용히 감사드리며, 미천한 저에게도 이런 일 하게 하시니 이번 학기에도 감사에 겨워 감격하며 주님의 일을 하리이다.

■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①

로잔운동과 김치신학세미나

'로잔'은 가입회원들로 구성된 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movement)이다.

로잔운동은 1974년 스위스 로잔(Lausanne)에서 열렸던 세계복음화 국제대회에서 시작하였다.

이 대회를 주동한 빌리 그레함 목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봉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회개를 강조하면서 전도의 중요성과 새로운 헌신에의 다짐을 역설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신학 선언문과는 달리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주님의 부르심에 새로운 헌신을 언약하는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로잔운동의 취지와 성과는 다음과 같다.

- ① 복음주의적 선교단체와 개인 및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세계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② 해외 선교 특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27억의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선교의 중요 과제를 인식케 함.
- ③ 세계 성도들의 기도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세계복음화를 촉진시킴.
- ④ 세계복음화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정리함.

지난 달 26일에 시작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리더십 개발과 흠어져 있는 복음주의 단체들과의 동반자적 협력을 로잔의 최우선의 과제로 정하고 새로로잔운동을 선언한 이번 세계로잔 중앙위원회에서는 김치신학세미나를 세계복음화의 최선의 전략으로 인정하고 우리교회의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KIMCHI)을 로잔의 공인기관으로 정하였다.

■ 자매교회를 다녀와서 - 한나 제 1전도회

참된 동역자가 되려고...

전인화(권사, 한나 1전도회장)

전남 보성의 강산제일교회에 도착하니 그곳에 온지 한달 남짓 되었다는 이재성 전도사님이 우리를 맞았다. 사모님은 두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주변 50여 세대 중 10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20명 재직에 주일 출석인원은 16명 정도이다. 젊은이들은 거의 다 도시로 나가고 중·고등학생들도 주변의 도시로 공부하러 떠났기에 마을에는 노인과 어린이들 뿐인데 주일학교에는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가 7, 8명이 참석하고 있단다. 농촌의 주택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 번 폐차 경고를 받을 정도로 낡은 이 전도사님의 차는 라지에타가 뚫려 조금만 달리면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 물을 붓는 일을 거듭해야만 했다.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한 것은 교회당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을 제대로 다

지지 않아 비만 오면 무릎까지 물이 차서 회중 모두가 장화를 신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젊은 전도사는 마을에 남은 이들이 대부분 병약한 노인이거나 어린이들임을 감안하여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도 충족해 주려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 찜질방의 운영이나 무료 의료기술 등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를 통해 전도하려는 것을 목표로 기도한다고 했다.

전남 고흥의 백수교회는 그곳에 부임한지 6년째가 되어 마을 유지와 같이 되었다는 최수현 전도사님이 시무하고 계셨다. 올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다는 최 전도사님과 그 교회는 비교적 안정감이 있어보였다. 교회 주변 80여 세대 중 20세대 30여 명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다는데 이곳도 보통의 농촌과 사정은 다를 바 없어서 중·고등학생은 없고 10여 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굳이 '식사를 대접해야 마음이 편하겠다' 하시는 전도사님을 뵈면서 마치 아들네 집에 온 기분이어서 우리 일행은 근처 여관에서 하루밤 묵고 다음날 아침 전도사님 댁에서 식사대접을 받았다. 서로가 후원금을 보내고 멀리서 기도하는 일 뿐 아

니라 참된 동역자의 관계를 다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제하는 일도 의미있다고 여겼기 때 문이다. 전도사님은 터미널까지 우리를 배웅해 주셨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여집사님이 난을 키워 판 돈으로 마련해 주었다는 전도사님의 차는 중고이지만 깨끗한 편이었다. 다시금 당산 교회의 그 고물차(?)가 떠오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무조건 더 나누고 싶고, 더 베풀고 싶은 마음 뿐이었고, 점점 더 열악해져 가는 농촌에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도 많은 감명을 받고 돌아왔다.



* 한나 전도회에는 60세 이상의 여성도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전도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한 모입니다.

(문의 ☎ 549 - 0085, 234 - 0915)

■ 신간



설교와 목회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회자신학세미나 강연 내용이 요단출판사에 의해 시리즈로 출판된다. 학기별 강연 내용을 편집한 이 책은 지난 달 15일에 제 1권인 <설교와 목회>가 출간되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귀중한 목회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종운 목사의 '오늘의 위기와 교회의 사명'을 비롯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로간 박사의 '설교현상학',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장인 민영진 박사의 '성경해석과 설교' 등과 김동익 목사, 박준준 목사, 김상돈 목사, 류기중 목사, 이성희 목사 그리고 테네시 대학교의 던칸 박사, 인도의 켄 그라나칸 박사의 '설교와 영성'에 대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고 3을 위한 *기도결연예배*

고등부에서는 고 3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취업과 진학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기도도 후원을 하는 모임을 3월 24일(주일) 오전 11시, 고등부 예배실(402호)에서 갖는다.

100교회운동

▶정정 및 추가

1996년 3월 13일 현재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1	순서	강산제일	이재성(전)	한나 1전도회
17	경동	송전	정용식(전)	요한 4, 에스더 3
57	영주	이산제일	조준래(목)	장동호
63	전서	수양	최광동(전)	양재, 한신다락방
70	경안	안평	이종기(전)	바울 6전교회
108	대전서	유구	박우성(목)	에스더 4, 바울 4
109	경안	도산	권태근(전)	이옥녀
110	영주	병산	이종구(목)	바울 1전교회

길동무

우리는 그리스도인 운전자



○...예배공간. 교육공간, 교제나 회의를 위한 공간..., 주일이면 이 모든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겪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성도들의 증가로 주차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날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적인 품목으로 자리잡으면서 주차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그에 대한 양식이 상식으로서 주차질서가 필요하다. 될 수 있는대로 주일에는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나'까지만 가까이'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먼저 교회로부터 먼 곳에 떨어진 곳에' 주차하려는 마음을 갖자.

특별히 교회 지하주차장이나 교회 앞 주차장은 장애인과 새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는 배려를 잊지 말고, 주일에 하루 종일 주차를 해 두는 제직들의 경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여유를 갖자.

주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과 조금 걸을 것을 예상하고 조금 일찍 서둘러 집에서 나오는 일도 잊지말자.

차량관리위원들은 주일에 성도들이 주차문제로 마음이 상하거나 흐뜨려져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데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운전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온유한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차량관리위원들의 지시를 그대로만 따라준다면 비좁긴 하지만 무리없이 주차가 가능할 것이다.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주관
3월 23일(토) 오후 2시



우리교회는 군복음화에 기여하고자 1993년 이래 해마다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을 주관하여왔다.

올해도 3월 23일(토) 오후 2시에 육군사관학교에서 거행될 세례식과 성찬식, 그리고 다과회 순서까지 모두 우리교회가 주관한다.

이 세례식에 참여할 성도는 당일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사진은 1995년 3월 11일에 거행된 육사세례식 광경.

■ 목회자·교우 동정 ■

- * 박종상 교역사가 3·4교구를 임시로 지도하게 되었다.
- * 박두호·한성옥 집사(8교구, 미아다락방)는 2일(토) 유일특수지(주) 청주영업소를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임근·김선이 집사(2교구, 개나리 1다락방)는 8일(금) 매봉역 앞에 '이레미장'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정무균·이영희 집사(2교구, 역삼 3다락방)는 9일(토) 평촌에 '우리밀 칼국수'를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김세재·이운진 집사(4교구, 서초다락방)는 9일(토) 압구정동에 '금화스포츠'를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서형열·이경란 성도(1교구, 삼성다락방)는 11일(월) 득녀하였다.
- * 최창기·정경실 성도(12교구 분당 다락방)는 14일(목) 득남하였다.
- * 서상근 집사·김예환 권사(11교구, 잠실 다락방)는 'ICA 미국 국제전화 통신서비스'를 개업하였다.

■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신청 접수 ■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일 / 1996년 2월 26일(월) ~ 3월 25일(월)
- 제출서류 / 본원 조정양식
- 등록금 / 한 학기(10주) 일만원
- 신청서 접수 및 수강 안내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517-7651 ~ 5, 팩스 512-1225)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N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아에이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의 준비를 위하여
2.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하여
3. 진정한 회개와 근신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낼 수 있도록
4. 농어촌 자매교회들을 위하여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